

정신과 환자가 인지한 활동요법의 효과와 기대에 대한 연구

연구자 : 김소야자, 김현숙, 윤수진, 정향인, 성경미

목 차

-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 II. 문헌고찰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정신질환이란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넓은 범위의 정신기능에 장애가 생긴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들은 외부 세계에서의 생활이 극도로 어려울때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병원은 환자에게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생활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반약에 입원한 환자들이 의사와 면담만 한 두시간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우기거나 앉아서 소일한다면 그 단조로움과 무료함 때문에 환자들은 자신의 내부로만 더욱 깊이 빠져 회복이 지연될 것이다. 다시 말해 병원내에서 환자는 보다 더 편안하고 불안을 덜 느끼는 상태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경험과 건설적인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병원이라는 환경을 치료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가정으로 환경요법(milieu therapy)이 대두하였다. 환경치료의 원리는 환자를 과다한 자극이나 위기로 부터 격리시켜 환자의 자아가능이 더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환자가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긴장한 방법으로 사회에 재적응 할수 있도록, 정신과 병원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치료적 분위기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이만홍, 김봉선, 신동민, 1986).

환경치료에서 실시하는 치료 프로그램의 하나인 집단 활동요법은 환자의 감정을 환기시키고 표현하는 능력을 증진 시킬 뿐 아니라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 사회적응 능력의 습득을 목표로 하고있다. 활동요법은 정신과 입원환자들에게 그들의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치료적인 활동 즉, 오락, 음악, 작업, 미술, 문학, 운동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치료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활동요법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전문적인 치료사도 거의 없으며, 치료자의 교육기관도 없기 때문에 정신과 병동의 간호사들이 병원의 이견에 맞추어 활동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실시되고 있는 활동요법에 대한 평가나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요법을 평가하고 그 방향을 정확히 설정할 수 있으며, 환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간호사의 역할 확립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과환자의 활동요법별 참석 동기를 파악한다.
2. 정신과환자의 활동요법별 불참 이유를 파악

한다.

3. 환동요법시행 간호사의 역할중 개선해야 할 점에 관하여 파악한다.
4. 치료자로서의 간호사의 직함성 여부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파악한다.
5. 정신과환자가 인지한 각 활동요법의 효과를 파악한다.
6. 각 활동요법에 대한 환자의 기대를 파악한다.

II. 문헌고찰

오늘날 간호사, 작업치료사, 오락치료사, 사회사업가, 정신건강보조원에 의해 진행되는 다양한 집단활동내의 사회치료적 하위체계들은 환자의 자아와 초자아발달을 돕는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환자는 적용에 필요한 기술과 방법을 발달시킴으로써 사회체계를 통달하도록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것은 실제 치료공동체라는 임상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데 이는 그 사회 안에서 기능하는 모든 직원이나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상황을 재현하기 위하여 경직된 수직구조를 줄이고 감정이나 의견이 자유로이 표현되도록 하며 모든 결정이나 환자의 치료에 관한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행위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Moss외, 1972) 치료공동체를 실시운영한 결과 환자들이 보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치료계획에 적극적이 되므로 환자들을 통제하지 않고도 병실에서의 파괴적인 행동이나 흥분발작이 현저히 감소하고 환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항정신병 약물에 의존하는 정도가 감소되었다는 보고가 많이 나와 있다.

따라서 민주적, 허용적, 자지적, 현실적시적 치료모델을 운영하기 위해 여러가지 치료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포함되는 다양한 형태의 치료 프로그램을 김(1987)은 공동사회모임, 그룹조정, 일일모임(morning meeting), 음악치료, 무용요법등으로 제시하고 있고 Black(1977)도 메일의 공동사회모임, 집단치료, 활동적인 작업치료, 오락치료, 개인정신치료등의 치료공동체의 프로그램으로 환경치료가 실시된다고 보고해 치료활동프로그램

에서 유사한 견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치료요법을 살펴보면 먼저 작업요법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지식이나 능력을 재확립시키고, 창조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울수 있게 해줌으로써 환자의 흥미를 깨달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으며 환자의 자존 및 자신감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게되고, 오락요법은 환자의 요구를 평가하여 환자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시작하는데 포함되어야 하며 환자가 병원환경을 떠나서 균형있는 인생을 재확립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또한 춤은 비언어적회화로 Marion Chase(1940)가 정서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재활을 위해서 리듬있는 신체운동의 사용을 개발한 후 현재까지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몸의 자세와 운동을 통해 환자의 언행과 역동성을 평가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몸운동을 통해 비위협적인 방법으로 치료적으로 에너지를 분배할 수 없는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며, 분화이나 시를 연구하는 모임은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즉 듣고 경험하는 정시와 농활벽을 나누고 탐구하도록 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에 대한 국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전과 이는 (1987) 모병등을 대상으로 환경치료를 평가한 결과, 집단활동 프로그램은 간호사와 사회사업가에 의해서 계획이 진행되면서, 집단활동 과정에서 발전되어지는 환자의 상태, 다른 환자들과의 상호작용형태 및 집단에 대한 공헌도등이 평가되어지고 있으며, 이 결과들은 환자의 치료권익단체 조정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집단활동 내용으로는 음악감상치료, 댄스치료, 작업치료, 산책 및 오락, 원외외출, 미술치료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김(1989)은 한국보훈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치료공동체로의 전환과 그 후 2년간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평가하고 몇몇 중요 프로그램의 변형·발전을 통해 치료적 빈위를 구체화하고자 시도한 바 있다. 프로그램 중에서 음악요법에 대해서는 조화를 통한 상호관계의 중요성 인식 및 자부심, 자연스러운 감정표현, 자발적 참여의 충기를 치료효과로 보았고, 무용요법에 대해서는 환자와 직원간의 깊은 관계, 개방적대화, 감정표현증가,

환자간의 관심과 이해증진을 치료효과로 보았다. 그외의 프로그램으로 생일파티, 인기가요 감상시간, 신문발행 및 방송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김(1984)은 서울 내혁 병원 신경정신과에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자 16명을 대상으로 독서요법을 실시한후 19명의 대조군과 비교해 본 결과, 독서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증상별 행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계적인 독서요법이 환자의 증상별 행동변화에 매우 효과적이며 질병 증세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진(1983)역시 음악의 심리적 반응 및 신체적 반응에 대해 논하면서 이의 치료적 효과를 강조했다. 특히 음악이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로 의사소통, 통일성, 연상, 자기표현 및 자기인식을 언급하면서 음악요법의 효용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회화요법에 대해서는 Naumburg(1966)은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상동증식 표현이 감소되고 자유스러워진다고 보았고, 이에 대한 연구로 Wilson(1985)은 정신분열병 환자의 회화를 치료경과에 따라 비교한 결과 내적갈등과 짐착하는 시기에는 전반적 표현이 이해하기 힘들다, 갈등이 상징화 과정을 통해 그 내적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중화되어지고 환상도 객관화시켜 재구성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표현성이 증가되고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변화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 등(1982)은 망상형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시행된 회화요법을 관찰하면서, 회화요법이 독립된 치료방법보다는 하나의 표현요법으로서 치료과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표명하였고, 고와 김(1990)도 앞으로의 예후와 관련하여 정신분열병 환자의 회화 연구를 강조하였다. 이외의 오락, 작업, 문학 등의 다양한 활동이 정신과 병동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국내연구는 거의 없으며 국외 연구 논문자료도 치료적 환경, 공동체 보위등에 관한 것은 많았으나 구체적인 활동요법에 관한 연구 보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활동치료를 받은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현대 각 활동요법이 환자에게 주는 치료효과와 그 기대되는 효과를 조사한 기술적 연구이다.

1991년 6월 1일부터 1992년 1월 18일까지 세브란스 병원 62병동에 입원한 환자중 자신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비교적 건강한 사고기능을 가진 퇴원예정환자 56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진이 작성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활동치료에 참여하는 간호사가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직접 자료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PSSPC로 다음과 같이 전산처리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활동요법별 참석횟수, 참석동기, 불참이유, 활동요법별 간호사의 진행방법 중 개선해야 할 점, 치료자로서 간호사의 저절성 여부, 각 활동요법의 효과, 각 활동요법에 참석하는 환자의 기대 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2) 정신과 진단명과 활동요법별 치료효과의 차이는 one way-ANOVA로 분석하였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활동요법별 참석횟수의 차이는 t-test와 oneway-ANOVA로 분석하였다.
- 4) 치료자로서 간호사의 적절성어부에 대한 인지에 따른 활동요법별 참석횟수의 차이도 t-test로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이 성별로는 남자가 55.4%, 여자가 44.6%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1세에서 30세가 66.1%로 가장 많았고, 12세에서 20세가 19.6%, 41세 이상이 8.9%, 31세에서 40세가 5.4%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학력별 분포는 대학교가 51.8%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39.3%, 중학교 8.9%로 나타났으며, 직

〈표 1〉 일반적 사항

학일반적 특성	구 분	인 수	백분율	
성 별	남자	31	55.4	
	여자	25	44.6	
연 령	12-20세	11	19.6	
	21-30세	37	66.1	
	31-40세	3	5.4	
	41세 이상	5	8.9	
학 력	국민학교	0	0.0	
	중학교	5	8.9	
	고등학교	22	39.3	
	대학교	29	51.8	
	대학원이상	0	0.0	
직 업	학생	20	35.7	
	부직	20	35.7	
	회사원	6	10.7	
	개인사업	2	3.6	
	공무원	7	12.5	
	농업	1	1.8	
질환명	정신분열증	34	60.7	
	주요우울증	6	10.7	
	정동장애	6	10.7	
	기질성 뇌중후군(기질성 정신장애)	1	1.8	
	신체화장애	2	3.6	
	분열성 경동장애	2	3.6	
	알콜중독증(알콜의존)	1	1.8	
	인격장애	1	1.8	
	입원 횟수	첫입원	28	50.0
		두번째 입원	12	21.4
세번째 입원		7	12.5	
네번 이상		9	16.1	
입원기간	30일미만	15	26.8	
	31-50일	17	30.3	
	50일 이상	24	42.9	
입원동기	자의	19	33.9	
	타의	35	62.5	
	자·타의	2	3.6	
	계	56	100.0	

업별 분포는 학생과 무직이 35.7%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이 12.5%, 회사원이 10.7%, 개인사업이 3.6%, 농업이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질환별 분포를 보면 정신분열증이 60.7%로 가장 많았고, 주요우울증과 정동장애가 각각 10.7%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신체화장애 분열성 정동장애가 각각 3.6%로 나타났다. 입원횟수별 분포를 보면 첫입원이 50.0%로 가장 많았고, 두번째 입원이 21.4%, 네번 이상 입원이 16.1%, 세번째 입원이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기간을 보면 50일 이상이 42.9%로 가장 많았고, 31일에서 50일 사이가 30.0%, 30일 미만인 26.8% 등으로 나타났다. 입원동기별 분포를 보면, 타의입원이 62.5%로 가장 많았고, 자의입원이 33.9%로 나타났다.

2. 활동요법별 참석 횟수

활동요법별 참석횟수는 대상자의 80% 이상이 10회 이하의 참석률을 보이고, 10회 이상 참석한 대상자는 10% 미만이었다.

3. 활동요법별 참석 동기

활동요법별 참석동기는 스스로 참여한 경우가 권유에 의해 참석한 경우보다 전요법에서 월등히 높았으며, 특히 오락요법은 89.3%, 음악요법은 83.9%가 스스로 참석한다고 응답하여 호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악요법은 66.1%, 그림요법은 64.3%가 스스로 참석한다고 응답하여 그중 가장 낮은 호응도를 보였다(표 3 참조).

4. 활동요법별 불참이유

전체 환자의 80.4%가 10회 이하 참석하였으며,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활동요법별로 그 이유를 보면, 중요법, 독서요법, 작업요법, 음악요법 등에서 치료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2%에서 36.8%였고, 오락요법, 삭문요법, 그림요법등에서는 관심이' 흥미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32.1%, 26.7%, 20.0%로 다른 이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작업요법이나 음악요법에서는 치료모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23.3%, 26.9%로서 두번째로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으며 중요법, 독서요법등에서는 관심이나 흥미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0.0%, 29.4% 등으로서 두번째로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다. 그밖에 매사가 귀찮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 환동별로 13.3%에서 23.1%의 응답율을 보였고, 흥미가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작문을 잘 못한다든지, 신문기사 뽑기가 힘들다든지 등의 활동자체가 개인에게 주는 부담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다(표 4 참조).

〈표 2〉 활동요법별 참석회수

횟수/활동	인수(비율)						
	중요법	독서요법	오락요법	작문요법	작업요법	그림요법	음악요법
1-10	45(80.4)	52(92.9)	49(87.4)	52(92.9)	52(92.9)	51(91.0)	51(91.0)
11-30	5(8.9)	2(3.6)	3(5.4)	2(3.6)	2(3.6)	3(5.4)	3(5.4)
31이상	0(0.0)	0(0.0)	1(1.8)	0(0.0)	0(0.0)	0(0.0)	0(0.0)
무응답	6(10.7)	2(3.6)	3(5.4)	2(3.6)	2(3.6)	2(3.6)	2(3.6)
총							56(100.0)

〈표 3〉 활동요법별 참석동기

횟수/활동	인수(비율)						
	중요법	독서요법	오락요법	작문요법	작업요법	그림요법	음악요법
스스로	37(66.1)	42(75.0)	50(89.3)	40(71.4)	42(75.0)	36(64.3)	47(83.9)
권유에의해	19(33.9)	14(25.0)	6(10.7)	16(28.6)	14(25.0)	20(35.7)	9(16.1)
총							56(100.0)

〈표 4〉 활동요법별 참석하지 않은 이유

인수(비율)

이유/활동	춤요법	독서요법	오락요법	작문요법	작업요법	그림요법	음악요법
매사가거껴찮다	7(20.0)	5(14.7)	5(17.9)	5(16.7)	4(13.3)	5(19.3)	6(23.1)
치료모임이 아니다	3(8.6)	3(8.8)	5(17.9)	4(13.3)	7(23.36)	3(11.5)	7(26.9)
치료에도움이 안된다	13(37.10)	14(41.2)	8(28.5)	7(23.3)	11(36.7)	8(30.8)	9(34.6)
관심이나 흥미가 없다	7(20.0)	10(29.4)	9(32.1)	8(26.7)	6(20.0)	9(34.6)	4(15.4)
기타	5(14.3)	2(5.9)	1(3.6)	6(20.0)	2(6.7)	1(3.8)	0(0.0)
계	35(100.0)	34(100.0)	28(100.0)	30(100.0)	30(100.0)	26(100.0)	26(100.0)

〈표 5〉 활동요법별 간호사의 진행방법중 개선해야 할 점

인수(비율)

내용/활동	춤요법	독서요법	오락요법	작문요법	작업요법	그림요법	음악요법
지속성 없음	2(4.3)	3(7.0)	3(6.7)	(7.5)	4(8.9)	3(6.7)	5(11.4)
간호사 개인의 관심부족	8(17.0)	2(4.7)	7(15.6)	3(7.5)	5(11.1)	8(17.8)	8(18.2)
전문적인 기술필요	11(23.4)	8(18.6)	18(40.0)	11(27.5)	11(24.4)	15(33.3)	15(34.1)
모임전후 환자의견수렴	23(48.9)	27(62.7)	15(33.3)	20(50.0)	22(48.9)	17(37.8)	12(27.3)
기타	3(6.4)	3(7.0)	2(4.4)	3(7.5)	3(6.7)	2(4.4)	4(9.0)
계	47(100.0)	43(100.0)	45(100.0)	40(100.0)	45(100.0)	45(100.0)	44(100.0)

〈표 6〉 치료자로서 간호사의 적절성 여부

인수(비율)

내용/활동	춤요법	독서요법	오락요법	작문요법	작업요법	그림요법	음악요법
예	50(89.3)	53(94.6)	52(92.9)	51(92.8)	52(92.9)	21(44.7)	51(91.1)
아니오	4(7.1)	1(1.8)	3(5.4)	2(3.6)	3(5.4)	24(51.1)	4(7.1)
무응답	2(3.6)	2(3.6)	1(1.8)	2(3.6)	1(1.8)	2(4.2)	1(1.8)
계	56(100.0)	56(100.0)	56(100.0)	55(100.0)	56(100.0)	47(100.0)	56(100.0)

5. 활동요법별 간호사의 진행방법 중 개선해야 할 점

활동요법을 이끌어 나가는 간호사의 진행방법 중 문제진 또는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모임전후에 환자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으며, 간호사 개인의 관심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춤요법, 오락요법, 그림요법, 음악요법 등에서 15.6-18.2%의 응답율을 보였다. 그 외에 춤요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과정을 치료자가 지켜봐 주었으면, 독서요법에서 권위있는 신분구독과 간호사가 치료적 효과를 주었으면, 작문요법에

서 자유주제를 주었으면, 작업요법에서 시설이 좋았으면, 음악요법에서는 의사의 참여나 음악에 관심있는 간호사 참여를 기대한다고 소수의 환자가 답하였다(표 5 참조).

6. 치료자로서 간호사의 적절성 여부

치료자로서 간호사의 적절성 여부는 그림요법을 제외한 모든 활동요법에서 거의 90%이상의 환자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그림요법에서는 44.7%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표 6 참조).

간호사가 치료자로서 적절한 이유는 작업요법을 제외한 전요법에서 환자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 환자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기 때문이라고 응답

〈표 7〉 간호사가 치료자로서 적절한 이유

인수(비율)

이유/활동	춤요법	독서요법	오락요법	작문요법	작업요법	그림요법	음악요법
환자들의 욕구를 잘 파악한다	20(40.0)	22(41.5)	25(49.0)	26(52.0)	9(16.7)	23(45.7)	21(41.2)
전문적인 치료자로서 모임을 이끈다	11(22.0)	11(20.8)	12(23.5)	12(24.0)	21(38.9)	15(38.9)	14(27.5)
비권위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다	14(28.0)	17(32.1)	11(21.6)	8(16.0)	24(44.4)	8(15.7)	13(25.5)
달리 할 사람이 없다.	5(10.0)	3(5.6)	4(7.9)	4(8.0)	0(0.0)	3(5.9)	3(5.9)
기타	0(0.0)	0(0.0)	0(0.0)	0(0.0)	0(0.0)	2(3.9)	0(0.0)
계	50(100.0)	53(100.0)	51(100.0)	50(100.0)	54(100.0)	51(100.0)	51(100.0)

〈표 8〉 간호사가 치료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이유

인수(비율)

이유/활동	춤요법	독서요법	오락요법	작문요법	작업요법	그림요법	음악요법
전문적인기술이 부족하다	6(42.9)	1(7.7)	2(18.2)	3(23.1)	5(50.0)	5(41.7)	7(50.0)
관심과 열의가 없다	3(21.4)	6(46.2)	4(36.4)	5(38.5)	3(30.0)	5(41.7)	3(21.4)
다른간호업무가 너무 많다	4(28.6)	5(38.4)	4(36.4)	4(30.8)	2(20.0)	2(16.7)	3(21.4)
기타	1(7.1)	1(7.7)	1(9.1)	1(7.6)	0(0.0)	0(0.0)	1(7.2)
계	14(100.0)	13(100.0)	11(100.0)	13(100.0)	10(100.0)	12(100.0)	14(100.0)

〈표 9〉 간호사외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치료자

인수(비율)

내용/활동	춤요법	독서요법	오락요법	작문요법	작업요법	그림요법	음악요법
의사	2(16.7)	3(42.9)	2(33.3)	3(50.0)	1(50.0)	1(20.0)	0(0.0)
사회사업사	0(0.0)	1(14.3)	0(0.0)	1(16.7)	0(0.0)	0(0.0)	0(0.0)
심리치료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문가	6(50.0)	0(0.0)	1(16.7)	2(33.3)	0(0.0)	2(40.0)	2(50.0)
리더그룹환자	2(16.7)	1(14.3)	2(33.3)	0(0.0)	0(0.0)	0(0.0)	0(0.0)
기타	2(16.7)	2(28.5)	1(16.7)	0(0.0)	1(50.0)	2(40.0)	2(50.0)
계	12(100.0)	7(100.0)	6(100.0)	6(100.0)	2(100.0)	5(100.0)	4(100.0)

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적인 치료자로서 모든 모임을 치료적으로 이끌 수 있다와 권위적이지 않아 모임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거의 비슷한 응답율을 보였고, 달리 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활동별로 5.6%에서 10.0%의 비율을 나타내었다(표 7 참조).

간호사가 치료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

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은 춤요법, 작업요법, 그림요법, 음악요법 등에서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0%에서 23.1%였고, 독서요법, 오락요법, 작문요법 등에서는 관심이나 열의가 없고 형식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2%, 36.5%로 높게 나왔다. 다른 간호업무가 너무 많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16.7%에서 38.4%의 분포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표 8 참조).

간호사가 치료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면 누가 적절한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흡요법, 그림요법, 음악요법 등에서 전문가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0%에서 40%로 가장 많았으며, 독서요법의 의사, 오락요법은 의사나 리더그룹환자, 작문요법과 작업요법은 의사 등으로 의사에 대한 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7. 각 활동요법의 효과

(1) 흡요법의 효과

흡요법의 효과로는 신체적으로 활기를 찾고 의욕을 느낀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이 49.0%였고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이 43.2%로서 92.2%의 대상자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문항에서는 79.6%, 불안이나 외로운 느낌이 가라앉고 후련한 느낌이 든다는 문항에서는 80.4%, 다른 사람과 친해지거나 사귀고 싶다는 문항에서는 76.5%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비교적 높은 치료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나 자신을 새로이 정리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는 문항에서는 60.0%의 대상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표 10 참조).

(2) 독서요법의 효과

독서요법의 효과로는 책 속에서 여러가지 좋은 생각이나 교훈을 얻게 된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8.0%,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2.0%로서 90.0%의 대상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기분이 좋아지고 풀린

〈표 10〉 흡요법의 효과

내 용	효과의 정도			인수(비율)
	그렇지않다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신체적으로 활기를 찾고 의욕을 느낀다	4(7.8)	22(43.2)	25(49.0)	51(100.0)
나를 표현할수 있는 기회가 된다	10(20.4)	21(42.9)	18(36.7)	49(100.0)
불안이나 외로움이 가라앉고 후련한 느낌이 든다	10(19.6)	21(41.2)	20(39.2)	51(100.0)
다른 사람과 더 친해지거나 사귀고 싶어진다	12(23.5)	19(37.3)	20(39.2)	51(100.0)
나자신을 새로이 정리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20(40.0)	19(38.0)	11(22.0)	50(100.0)

〈표 11〉 독서요법의 효과

내 용	효과의 정도			인수(비율)
	그렇지않다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기분이 좋아지고 풀린다	15(30.6)	24(49.0)	10(20.4)	49(100.0)
정신이 집중되고 여러가지 상상이 하게된다	17(35.4)	19(39.6)	12(25.0)	48(100.0)
책이나 신문을 읽으면 밤에 잠이 잘온다	22(46.8)	20(42.6)	5(10.6)	47(100.0)
책속에서 여러가지 교훈이나 좋은 생각을 얻고 배우게 된다	5(10.0)	21(42.0)	24(48.0)	50(100.0)

〈표 12〉 오락요법의 효과

인수(비율)

내 용	효과의 정도			계
	그렇지않다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정신집중이 잘된다	16(30.2)	26(49.1)	11(20.7)	53(100.0)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5(9.3)	31(57.4)	18(33.3)	54(100.0)
기분이 좋아진다	1(1.9)	29(54.7)	23(43.4)	53(100.0)
몸과 마음에 활기를 느끼게 된다	4(7.4)	26(48.1)	24(44.5)	54(100.0)
다른사람과 함께 협동하고 경쟁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11(20.4)	26(48.1)	17(31.5)	54(100.0)

〈표 13〉 전문요법의 효과

인수(비율)

내 용	효과의 정도			계
	그렇지않다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6(11.1)	13(24.0)	35(64.8)	54(100.0)
마음이 가라앉고 내분세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	9(16.7)	20(37.0)	25(46.3)	54(100.0)
생각이 정리되고 정신집중이 된다	9(16.7)	22(40.7)	23(42.6)	54(100.0)
다른사람에게 관심이 생기며 이해가 되고 친해지고 싶다	6(11.1)	25(46.3)	23(42.6)	54(100.0)
다른사람에게 이해를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	9(16.7)	21(38.9)	24(44.4)	54(100.0)

다는 문항에서는 69.4%, 정신이 집중되고 여러가지 상상도 하게 된다는 문항에서는 64.6%, 책이나 신문을 읽으면 밤에 잠이 잘 온다는 문항에서는 53.2%의 대상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표 11 참조).

(3) 오락요법의 효과

오락요법의 기분이 좋아진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43.4%, 약간 그렇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4.7%로서 98.1%의 대상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몸과 마음에 활기를 느끼게 된다는 문항에서는 92.6%,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문항에서는 91.1%, 다른 사람과 함께 협동하고 경쟁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문항에서는 79.6%, 정신집중이 잘된다는 문항에서는 69.8%의 대상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표 12 참조).

(4) 전문요법의 효과

전문요법의 효과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며 이해가 되고 친해지고 싶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42.6%, 약간 그렇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46.4%로서 88.9%의 대상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문항에서는 88.8%, 마음이 가라앉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는 문항과 생각이 정리되고 정신집중이 된다는 문항,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는 문항은 모두 83.3%의 대상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표 13 참조).

(5) 작업요법의 효과

작업요법의 효과로는 뭔가 할일이 있고 그 일을 한다는 자체가 즐겁다라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7.7%, 약간 그렇다고 응답

〈표 14〉 작업요법의 효과

인수(비율)

내 용	효과의 정도			계
	그렇지않다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뭔가해냈다는 뿌듯한 느낌이 든다	11(20.8)	29(54.7)	13(24.5)	53(100.0)
기분전환이 되고 만족스럽다	13(24.5)	22(41.5)	18(34.0)	53(100.0)
뭔가 할 일이 있고 그일을 한다는 자체가 즐겁다	7(13.2)	26(49.1)	20(37.7)	53(100.0)
다른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9(16.7)	21(38.9)	24(44.4)	54(100.0)
나의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1(38.9)	18(33.3)	15(27.8)	54(100.0)
퇴원후의 생활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13(24.5)	22(41.5)	18(34.0)	53(100.0)

〈표 15〉그림요법의 효과

인수(비율)

내 용	효과의 정도			계
	그렇지않다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4(7.4)	23(42.6)	27(50.0)	54(100.0)
마음속의 괴로움을 표현하게 되어 웬지 후련하다	11(21.2)	29(55.8)	12(23.1)	52(100.0)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이 정리된다	11(20.8)	24(45.2)	18(34.0)	53(100.0)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의욕이 생긴다	15(28.3)	17(32.1)	21(39.6)	53(100.0)
다른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생긴다	4(7.5)	27(51.0)	22(41.5)	53(100.0)
다른사람에게 이해받는다는 느낌 이 든다	9(17.0)	32(60.4)	12(22.6)	53(100.0)

한 대상자가 49.1%로서 86.8%의 대상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문항에서는 83.3%, 뭔가를 해냈다는 뿌듯한 느낌이 든다는 문항에서는 79.2%, 기분전환이 되고 만족스럽다는 문항과 퇴원 후의 생활에 적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문항은 모두 75.5%, 나의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문항에서는 61.1%의 대상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표 14 참조).

(6) 그림요법의 효과

그림요법의 효과로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

가 된다는 문항에서 50.0%의 대상자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42.6%의 대상자가 약간 그렇다고 응답하여 92.6%의 대상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생긴다는 문항에서는 92.5%,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는 문항에서는 83.0%,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이 정리된다는 문항에서는 79.2%, 마음 속에 괴로움을 표현하게 되어 웬지 후련하다는 문항에서는 75.9%,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의욕이 생긴다는 문항에서는 71.7%의 대상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표 15 참조).

〈표 16〉 음악요법의 효과

인수(비율)

내 용	효과의 정도			계
	그렇지않다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것 같다	8(14.3)	22(39.3)	26(46.4)	56(100.0)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는다	7(12.7)	22(40.0)	26(47.3)	55(100.0)
정신이 집중되고 생각이 정리된다	10(18.5)	24(44.4)	20(37.0)	54(100.0)
의욕이 생기고 희망적인 생각이 든다	10(18.5)	23(42.6)	21(38.9)	54(100.0)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1(38.9)	20(37.0)	13(24.1)	54(100.0)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	11(20.0)	23(41.8)	21(38.2)	55(100.0)
다른사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생긴다	10(18.2)	26(47.3)	19(34.5)	55(100.0)
다른사람에게 이해를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	22(41.5)	15(28.3)	16(30.2)	53(100.0)

(7) 음악요법의 효과

음악요법의 효과로는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47.3%, 약간 그렇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40.0%로서 87.3%의 대상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다는 문항에서는 85.7%,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생긴다는 문항에서는 81.5%, 정신이 집중되고 생각이 정리된다는 문항에서는 81.4%,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문항에서는 61.1%,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는 문항에서는 58.5%의 대상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표 16 참조).

8. 각 활동요법에 참석하는 환자의 기대

(1) 춤요법에 참석하는 환자의 기대

춤요법에 참석하는 환자의 기대로는 기분전환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66.7%로 가장 많았으며, 활동성 증진이 9.5%,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7.1%등으로 나타났다. 기대가 없이 그냥 참석하는 대상자의 비율도 16.7%나 되었다(표 17 참조).

그 외에도 공간이 넓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

〈표 17〉 춤요법 참석시 환자의 기대

내 용	인 수	비 율
활동성 증진	4	9.5
기분 전환	28	66.7
치료에 도움	3	7.1
기대 없음	7	16.7
계	42	100.0

(2) 독서요법에 참석하는 환자의 기대

독서요법에 참석하는 환자의 기대로는 몰랐던 사실을 알기 위함이 38.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가 16.1%, 정신집중과 안정이 12.9%, 나의 주장을 말하고 남

〈표 18〉 독서요법 참여시 환자의 기대

내 용	인 수	비 율
몰랐던 사실을 알기 위해	12	38.7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	5	16.1
정신집중 또는 안정	4	12.9
나의 주장을 말하고 남의 의견을 듣는 대화	6	19.4
기대 없음	4	12.9
계	31	100.0

의 이야기를 듣는 대화가 12.9%를 나타내었다. 아무 기대 없이 참석한다는 응답도 19.4%나 되었다(표 18 참조).

그 외에도 신문 읽을 시간이 충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와 음악을 함께 들려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다.

(3) 오락요법에 참석하는 환자의 기대

오락요법에 참석하는 환자의 기대로는 재미나 기분전환, 스트레스 해소 등의 비율이 43.3%로 가장 높았으며, 친목이나 대화 등의 대인관계에 관한 항목이 24.3%, 휴식이나 마음의 안정 등의 내적 평안에 관한 항목이 10.8%,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항목이 8.1%등을 나타냈으며, 기대가 없다는 응답자도 13.5%나 되었다(표 19 참조).

그 외에도 프로그램이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다.

〈표 19〉 오락요법 참석시 환자의 기대

내 용	인 수	비 율
재미/기분전환/스트레스 해소	16	43.3
친목/대화	9	24.3
휴식/마음의 안정	4	10.8
치료에 도움	3	8.1
기대 없음	5	13.5
계	37	100.0

(4) 작문요법에 참석하는 환자의 기대

〈표 20〉 작문요법 참석시 환자의 기대

내 용	인 수	비 율
자기자신을 표현	14	43.7
생각정리/안정	6	18.7
다른사람 이해/대화	2	6.3
발표력을 키워 줌	2	6.3
치료를 위해	1	3.1
배우고 느끼기 위해	3	9.3
시간의 효율적 사용/재미	2	6.3
기대 없음	2	6.3
계	32	100.0

작문요법에 참석하는 환자의 기대로는 자기자신을 표현한다는 항목이 43.7%로 가장 많았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이 안정된다는 항목이 18.7%, 배우고 느끼기 위함이 9.3%,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대화를 하기 위함이 6.3%, 발표력을 키우기 위함이 6.3%,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미를 얻기 위함이 6.3%, 치료를 위함이 3.1%등으로 나타났으며, 기대가 없다는 응답도 6.3%가 있었다(표 20 참조).

(5) 작업요법에 참석하는 환자의 기대

작업요법에 참석하는 환자의 기대로는 대화 협동 등의 사회성 훈련과 화목한 분위기등의 대인관계에 관한 항목이 3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흥미, 즐거움, 기분전환 등의 항목이 18.8%, 기술습득이나 자기개발 등의 항목이 15.6%,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 12.5%를 나타내었다(표 21 참조).

그 외에도 색다른 작업요법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다.

〈표 21〉 작업요법에 참석시 환자의 기대

내 용	인 수	비 율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4	12.5
대화/협동등의 사회성 훈련/화목한 분위기	11	34.5
흥미/즐거움/기분전환	6	18.8
기술습득/자기개발	5	15.6
기대 없음	6	18.8
계	32	100.0

(6) 그림요법에 참석하는 환자의 기대

그림요법에 참석하는 환자의 기대로는 표현욕구

〈표 22〉 그림요법에 참석시 환자의 기대

내 용	인 수	비 율
표현욕구 충족	14	51.9
대 화	1	3.7
재미/의욕	2	7.4
정신 집중	3	11.1
기대 없음	7	25.9
계	27	100.0

를 충족하기위함이 51.9%로 가장 많았고, 정신집중이 11.1%, 재미나 의욕을 얻기 위함이 7.4%, 대화를 하기 위함이 3.7%로 나타났으며, 기대가 없다는 응답도 25.9%로 나타났다(표 22 참조).

(7) 음악요법에 참석하는 환자의 기대

음악요법에 참석하는 환자의 기대로는 기분전환이나 마음의 안정이 97.1%를 차지하였으며, 자기를 표현하기 위함이 2.9%로 나타났다(표 23 참조).

그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표 23〉 음악요법 참석시 환자의 기대

내 용	인 수	비 율
기분전환/안정	34	97.1
자기표현	1	2.9
계	35	100.0

V. 결론 및 재언

본 연구는 정신과 병동에서 간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치료적 병실활동에 대하여 입원환자가 인지하고 있는 치료효과와 기대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병실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한 기술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 56명을 대상으로 1991년 6월 1일부터 1992년 1월 18일까지 질문지를 통한 자료수집을 하여 통계처리한 후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과 입원환자의 활동요법별 참석동기는 각 활동요법 별로 살펴보면 참석한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이 64.3%에서 89.3%의 분포를 보여 비교적 높은 호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요법에 참석하지 않은 환자의 불참 이유는 활동요법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치료에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고, 관심이나 흥미가 없다. 매사가 귀찮다. 치료모임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등의 응답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신과 입원환자가 인지한 활동요법별 간호사의 진행방법 중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모임전후에 환자들과의 의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월등히 많았으며, 간호사 개개인의 관심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3. 정신과 입원환자가 인지한 치료자로서 간호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요법을 제외하고 모든 활동요법에서, 환자의 90%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런요법에 대해서는 환자의 44.7%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간호사가 치료자로서 적절한 이유에 대해서 각 활동요법 별로 보면 환자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 환자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작문요법에서는 52.2%, 오락요법에서는 49.0%로 가장 높았으며, 간호사가 치료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사항은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작업요법, 음악요법에서는 50%, 관심이나 열의가 없고 형식적이라는 응답이 독서요법에서 46.2%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4. 정신과 입원환자가 인지한 치료효과를 각 활동요법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춤요법에서는 신체적으로 활기를 찾고 의욕을 느낀다는 문항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한 대상자가 92.2%로 가장 많았고, 후련한 느낌이 든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에서도 각각 80.4%, 79.6%의 대상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2) 독서요법에서는 여러가지 좋은 생각이나 교훈을 얻게 된다는 문항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한 대상자가 90.0%로 가장 많았으며, 기분이 좋아지고 풀린다는 문항에서는 69.4%의 대상자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3) 오락요법에서는 기분이 좋아진다는 문항에서 98.1%, 몸과 마음에 활기를 느끼게 된다는 문항에서 92.6%,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문항에서 91.1%로 가장 많았다.

4) 작문요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며 이해가 되고 친해지고 싶다는 문항에서 88.9%로 가장 많았다.

5) 작업요법에서는 일자체가 주는 즐거움에 대해서 86.8%,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문항에서 83.3%로 가장 많았고, 성취감에 대한 문항에서도 79.2%로 나타났다.

6) 그림요법에서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문항에서 92.6%,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생긴다는 문항에서 92.5%로 가장 높았다.

7) 음악요법에서는 마음의 안정에 관한 문항에서 87.3%, 기분전환에 관한 문항에서 85.7%로 높이가 나타나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각 활동요법에 참석하는 환자의 기대에 대한 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춤요법에서 기분전환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66.7%로 가장 많았고, 독서요법에서는 정보를 얻기위함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오락요법에서는 재미, 기분전환, 스트레스해소 등이 43.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문요법에서는 자신을 표현한다는 항목에서 43.7%로 가장 많았고, 작업요법에서는 대인관계에 관한 항목이 34.3%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림요법에서는 표현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 51.9%로 가장 많았으며, 음악요법에서는 기분전환이나 마음의 안정이 9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제언을 해보면, 현재 정신질환자 모두에게 적절한 치료가 행해질 수 있도록 정신간호사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다양한 그룹치료 활동을 개발해야 될 것이며, 각각의 환자에게 치료적인 효과를 최대한으로 주기 위해 환자의 입원전 활동상황 및 특기, 취미, 직업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고 이를 적용해야 되겠다. 또한 정신간호사는 전문적인 훈련 및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이를 집단 활동요법에 활용해 치료적인 효과를 도모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고대관, 김재환(1990). 정신분열병환자의 회화에서 나타난 예후적 특징에 관한 일 연구. 신경정신의학, 29(4), 855-866
김이영, 한오주(1972). 정신병동에서의 회화지

료 : 일 예의 정신분열병환자의 회화론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11(1), 17-24
이소우, 김소야자 외(1987). 개정정신간호총론, 수문사 : 서울, 592-593
김종하, 정복용, 이기연(1990). 환경요법의 발전에 따른 2년간의 병실환경에 대한 추적. 신경정신의학, 29(2), 429-439
김태경(1984). 독서요법이 정신과 입원환자의 증상별 행동과 질병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영태, 이기연, 이만홍(1989). 치료공동체로의 구성과 추적평가, 신경정신의학, 28(1), 136-145
윤석하(1971).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의 치료적 가치의 비교, 경북의대잡지, 12, 229-239
이근후 외 (1988). 최신임상정신의학, 하나의학사 : 서울, 713-714
이만홍, 신동범, 강복선, 이영추(1985). 일 정신과 병실내의 공동사회모임 : 3년간의 경험에 대한 분석. 신경정신의학, 24, 248-256
전식균, 이만홍(1987). 의학적병동에서의 환경치료적 접근. 신경정신의학, 26(2), 320-332
진성태(1983). 음악요법 II : 음악의 생리적, 심리적 효과에 대하여. 최신의학, 26(7), 101-106
Clark DH(1981). Social therapy in psychiatry (2nd), New York Churchill Livingstone, 10-86
Keilam GS, Schmelzer JL and Berman A(1966). Variations in the atmospheres of psychiatric wards. Arch Gen Psychiatry, 14, 561-570
Moos RH, Schwartz J(1972). Treatment environment and treatment outcome. J Nerv Ment Diso. 254-275
Naumburg M(1966). Dynamically oriented Art Therapy : its principles and practice(1st), New York and London, 8-9
Wilson L. (1985), Symbolism and Art therapy II symbolism's relationship to Basic Psychiatric Function, American J Art Therapy, 23, 129-133

A study of psychiatric patients perceived effect and expectance of the activity therapy

Soyasa Kim, Hyunsook Kim, Soojean Yoon, HyangIn, Jung, Kyungmi Sung

The intent of this descriptiv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atients perceived effect and expectance of activity therapy.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56 patients from the psychiatric ward in Severance Hospital.

The data were collected during the period from June 1, 1991 to January 18, 1992. The effect and expectance of the activity therapy was measured using a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is study's investigators.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one-way ANOVA, using the SPS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

1. For motivation for the activity therapy, the response range was from 64.3% to 89.3%, that is, it showed a relatively positive response.

2. For the degree of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nurse's method in the activity therapy, it was shown that the nurses need professional skill and meeting after activity therapy.

3. For the relevance of the nurse in the activity therapy, 90% of the subjects had a positive answer for all of the activity therapy except the painting therapy.

4. For the perceived effect of the activity therapy,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92% of the subjects had a positive response to the dance therapy, that is-I am vigorous physically.

2) 90% of the subjects had a positive response to the reading therapy, that is-I acquire good ideas and instruction.

3) 98.1% of the subjects had a positive response to the recreation therapy, that is-I am joyful.

4) 88.9% of the subjects had a positive response to the writing therapy, that is-I am interested and become acquainted with other patients.

5) 86.8% of the subjects had a positive response to the occupation therapy, that is-I am happy when I work.

6) 92.6% of the subjects had a positive response to the painting therapy, that is-I can express myself in painting.

7) 87.3% of the subjects had a positive response to the music therapy, that is-I am comforted.

5. For the expectance related to the activity therapy, 97.1% the subjects had the most positive response to the music therapy which is a pleasant comfortable time.

From the above-mentioned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psychiatric nurses need to development systematic and professional group activity therapy, and know the patient premorbid hobbies, interests and occupations.